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있기에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성령의 강동 함 가운데 진행된 태국·케냐·콩고민주공화국 3개국 선교 소식.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아 즐겨 순종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태국·케냐·콩고민주공화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손수건 기도회를 통해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전한다.

자녀의 양육도 주님의 은혜로~

늘치 못할 일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 자녀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받은 최복이 성도와 이진주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17호 2017년 12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불같은 성령의 역사, 수많은 영혼이 충만케 되다!

### 태국·케냐·콩고민주공화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주는 성령의 복음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부터 22일까지의 선교 일정으로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태국,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3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공연: 권능팀, 사진 5).

첫 집회는 11월 7일(화), 태국 메사이 메콩 델타호텔에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총 6개국에서 참석한 가운데 ‘인도차이나 목회자 세미나’로 진행되었다(사진 4).

강사 이희선 목사는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롬 8:12~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였고, 이후 충만하게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11월 8일(수),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목사) 손수건 집회 시에는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자폐증을 비롯 당뇨, 천식 등을 치료받고 청력, 시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9, 10).

태국에서 케냐로 이동한 선교팀은 11월 12일(주일), 나이로비만민교회(담임 정명호 목사)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였다.

1부 예배는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 총회장들과 케냐 18개 지역 지교회 목회자들을 비롯 3,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이희선 목사가 ‘은영의 흐름’(고전 12:27)에 대해 전했다.

2부 손수건 집회에서는 유섬유증, 관절염 등이 치료되고 시력·청력이 회복되는 등 치유된 간증이 넘쳤다(사진 7, 8).

13일(월)에는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라는 제목으로 ‘케냐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싶

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다.

이후 선교팀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옮겨 11월 16일(목), 각 교단 총회장 및 교계 주요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킨샤사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희선 목사는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은혜받은 총회장 및 교계 주요 목회자들이 교계를 나누며 하나 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17일(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담임 자크 네마 시카텐다 목사)에서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말씀을 전한 후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이를 통해 귀신의 세력에서 놓임받고 탈장, 비염, 중풍, 보행 장애 등을 치료받아 수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8일(토)에는 킨샤사만민교회(담임 이호수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임직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강사 이희선 목사는 기념예배 시 ‘목자의 열매’(시 126:5-6)라는 말씀을 전했다(사진 6). 손수건 기도를 통해 에이즈로 고통받

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치료되었으며, 갖가지 질병 치료 및 시력·청력을 회복하여 넘치는 간증으로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사진 11, 12).

19일(주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최대 교회인 영적 전쟁교회(담임 엘리자베스 올랑기 오쇼 목사)에서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다. 강사 이희선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말씀을 전한 후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비롯하여 에이즈, 말라리아, 맹장염 및 각종 통증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사진 1~3, 13).

영적 전쟁교회 엘리자베스 올랑기 오쇼 담임목사는 “귀한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성도들을 충만케 해 주시에 감사하다.”며 선교팀을 보내 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영적 전쟁교회 방송 CVV TV와 RTGA 방송을 통해 50여 개국에 송출되었으며 앙골라, 런던 등에서 은혜받았다는 연락이 오는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힘들이 온다 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타국과 광야를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해야 했고, 함께하는 무리를 위해 양식을 구하다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요. 한번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그들과 거민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살기등등하게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동고동락한 부하들이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는 기막힌 일도 당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연단의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찬송 시를 남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못 백성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하는 큰 왕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영혼이 잘되는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 연단이 따를 수 있지만, 결국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축복의 과정이므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드림으로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 2.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라고 했습니

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심을 깨우쳐 줍니다.

예컨대, 육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A라는 한 가지 길밖에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A보다 탁월한 B, C, D라는 길까지 꿰뚫어 보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감사해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지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봉헌할 수 없었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재료를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대, 성전 봉사자 등 미리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전술에 능했지만 세세한 분야까지 하나님께 여쭙곤 했지요. 부지중에 하나님 뜻을 거슬렀을 때는 깨우치는 대로 겸손하게 회개하였고 반드시 하나님 뜻에 따라 즉시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겸비한 마음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시 25:5).

영육 간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마음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될수록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음성을 들어 나감

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3.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즐겨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크심을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지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또한 철저히 회개했고 징계를 통해 죄성까지 벗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땅에서 이름난 왕으로 세워 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은 응답과 축복, 형통함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이지요.

그러므로 즐겨 순종하심으로 응답을 받아 범사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도 항상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지요. 다윗이 찬양 시로 남긴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깨달아지니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지요. 그 결과 통일왕국을 이루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 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선과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평생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선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지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연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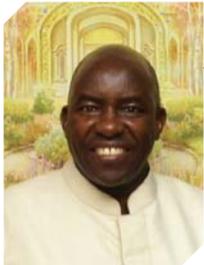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참회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태국·케냐·콩고 목회자 세미나

## “파워풀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피터 자우 목사** (케냐복음전도협회 나이로비 회장)

많은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려면 누구나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고, 내용은 참으로 파워풀했습니다. 감사님은 어떻게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셨습니다. 참된 종의 길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었고, 그 길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성결의 복음이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이 담긴 성결의 복음을 받기까지 헌신하신 이재록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아프리카 성회를 부탁드립니다.

## “성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샤를 겔라니 목사** (전 세계 아프리카선교연합 대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과 대화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성결에 대한 강한 사모함을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띠프 목사** (영적 전쟁 교단 소속 가봉 선교사)

영적 전쟁 교회 집회는 CVV TV와 RTGA 방송으로 50여 개국에 위성을 통해 생방송 되었습니다. 이에 지부 선교사들은 이재록 박사가 이곳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록 박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의 4만 석이 다 차고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집회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눈물로 회개한 후에는 갖가지 기적의 역사가 성전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크신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참된 종의 마음을 깨우치고 기도받은 뒤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위라퐁 잉와타나쿤 목사** (인도차이나반도 목회자협회 부회장)

저는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질병이 떠나고 약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의 역사가 만민중앙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8년, 한국을 방문해 손수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권능의 손수건을 품고 근처 마을에 사는 무당을 전도하여 그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해 마을 이름이 ‘나사렛’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며 사역을 해나갔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일을 병행하다 보니 제 마음은 나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영혼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인도차이나반도 목회자 세미나 시 주의 종으로서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을 통회자복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강사 이희선 목사님이 제 가슴에 손수건을 얹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 심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리며 전신이 무력한 느낌 등 모든 증상이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 It's so amazingly wonderful

**팍퐁 성도** (20세, 태국)

“저는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형식수설 했는데 기도받은 뒤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고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사다 성도** (29세, 미얀마)

“10년 동안 양쪽 귀 난청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공포증도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뒤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블란세계 도르가스 성도** (17세, 콩고민주공화국)

“태어날 때부터 양쪽 시력이 좋지 않아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받은 뒤 시력이 좋아져 책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메리 무시시 성도** (37세, 케냐)

“나팔관 통증과 축농증으로 인한 두통이 있었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고 작은 글씨도 잘 보입니다.”



**12**  
DECEMBER 2017  
12/10~12/16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마음
- 심자기의도 11-16
- 믿음의 분량 9-13
- 지옥 7-11
- 성령의 9가지 열매 3-9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5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
- 요한일서 강해 30-36

**GCN TV 설교**

- 변화의 열매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78 (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41 (신동초 목사)
- 3계명 1 (정구영 목사)
- 선한 목자 (김수정 목사)
- 열매 맺는 비결 3 (김창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스페셜 6
- 모두 드려요 50
- 옛날 옛적에 (시즌2) 8
- 내 마음의 찬양 30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
- 마지막 때 6
- 창조와 과학 16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스페셜) 2
- 독일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2

전국 어디서나 **allah tv 882번** | 세계 어디서나 **Roku TV**

# “언어발달 지연 진단을 받은 우빈이가 기도받고 말을 잘해요!”

# “아들 이수가 수신증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최봄이 성도 (35세, 1대대 6교구)

이진주 성도 (30세, 1대대 6교구)



제 아들(4세, 장우빈)은 생후 38개월이 되었는데도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빈아, 이거 차야, 자동차.” 하면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고 그냥 “응.” 하였지요.

이 시기에 다른 아이들은 조사와 동사를 섞어서 얘기하는데, 우빈이는 생후 18~20개월 수

준으로 세 단어 이상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빈이도 친구들과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면 몸으로 밀어버리는 등 거칠게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2017년 7월 10일, 소아과 검사를 받아보니 ‘언어발달 지연’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어치료, 인지치료, 소근육 발달도 또래보다 많이 저하되어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한 달 치료비만 해도 1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장애 등록을 시키세요. 지금 아이를 잡아 주지 않으면 자폐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침 ‘2017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교회에서 사전 환자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저는 아이를 ‘언어발달 장애’로 등록하였습니다.

8월 7일(월),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첫날 교육 후 우빈이의 치료를 마음에 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빈이가 “엄마, 이모 갔어요? 없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문장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9일(수),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당회장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자 우빈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라고 하더니 “아멘, 아멘.” 하며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10일(목), 응답의 확신 가운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한 달 전에 좋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며 매우 놀라워했지요. 이후 우빈이는 말이 계속 늘어 언어능력이 신속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빈이는 갓난아기 때 심방심실중격결손으로 심장에 구멍이 4개나 있었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목자의 공간 안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한없는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의 기쁨도 잠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가 요로폐쇄증으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신장이 붓고 방광벽이 두꺼워져 신장에 물이 차오르는 수신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출산하고 2주 후, 요로를 뚫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했음에도 수신증 수치가 높고 방광벽이 두꺼워서 정상적으로 이완 수축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간 약을 복용하여 치료를 기대해 보지만 당장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의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 하였지만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아이에게 아픔이 왔다는 사실에 저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응답받겠다고 믿었기에 기도하며 병원에서 받은 6개월분의 약을 아이에게 먹이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아침금식을 하면서 매일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와 3분 설교 말씀을 듣고, 아이에게 만민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산상 기도 중이신 당회장님께서 교회에 나오실 때에는 아기와 함께 인사를 갖고, 그때마다 당회장님께서 아기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지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달려가던 2017년 5월 15일, 교회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온전히 치료될 것을 마음에 소원하며 당회장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약속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저와 약속해 주신 뒤 아기를 한 번 더 돌아보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날, 정기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지를 번쩍 올리시며 “수신증이 없으며 6 mm로 늘어져 있던 요관도 2 mm로 정상이 되었고, 방광벽도 많이 얇아졌네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장의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 듯 밀려왔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가 넘쳤지요. 현재 아들(2세, 윤이수)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